

## 自動車엔지니어紛爭

—變節의 結果와 和解—

X는 A會社에 入社와 同時에 高等數學을 驅使하여 自動車에 관한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을 改革하기 시작하였다.

1년도 채안되어 同시스템의 新規特許出願에 이어 플로트라이프의 實驗도 그結果가 훌륭하였다. 따라서 同效果에 대하여 매스컴에서도 크게 取扱하였고 會社의 株價도 上昇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A社에는 美國C電氣會社로부터 警告狀이 날아들었다. 그 內容인즉 A가 發表한 新시스템은 C會社가 B會社로부터 讓受한 特許의 一部이며 그 權利가 自社の 것이라는 主張이었다.

이에 대한 X의 說明은 「그가 B에 勤務當時 C에 양도된 시스템은 製品化하기에는 一部の 改善이 必要하였으므로 契約에 따라 B는 改良型을 다시 C에게 提供하는 改善義務를 負責한 것은 事實이나 그 自身은 合法的으로 B를 떠났으므로 모두가 B와 C사이의 問題에 不過하다. 따라서 自己와는 아무 關係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A는 即時 C와의 交渉을 展開하였다. 中企業인 C에게는 B와의 特許契約이 社運을 거는 去來이므로 妥宜한 妥協은 바랄 수가 없는 形便이었다.

이에 따라 C는 극히 攻擊的이며 A와 B사이의 X의 轉職에 관한 事前談合 또는 特許權의 不正取得에 따른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하였다. 提訴된 A는 美國 特許辯護士와 事件對策을 構想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C는 X의 過去 歷經을 調査한바 그의 몇가지 紛爭事實을 밝혀냈다. 특히 轉職때마다 類似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거의 常習者임이 確認되었다.

이에 따라 C와의 法的關係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X가 A에 入社後 出願한 發明인지, 또 A에 轉職할 豫定이면서 이를 감추고 C를 契約對象으로 삼았는지의 與否를 追窮하였으나 X

는 극히 非協調的이었다.

그러나 辯護士의 確認結果는 A가 發表한 시스템을 완성한 時期에 대해서는 X가 A에 入社한 다음의 일이라는 事實이 研究노트, 報告書 등에서 明確히 되었다.

또 利用關係는 X의 意見이 너무 主觀的이므로 A는 X의 新시스템을 實施하려면 C의 許諾이 必要한 狀況이었다.

이같은 事情등으로 미루어 A는 裁判의 一時 停止를 申請하는 한편 C와 直接解決等을 摸索하려 했다. 그러나 C쪽으로는 X에 대한 感情의 深度가 높아 交渉은 難航이었으며 和解條件으로 C는 X를 解雇하고 X의 시스템에 관한 特許出願을 모두 C에 返還하되 A는 C에게 5%의 로열티를 支拂하는 實施契約을 맺으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A는 私設探偵에게 依頼하여 C의 弱點을 探索시켰다. 그 結果 C는 資金이 窮乏하여 倒産之境이었으며 B로부터 買受한 舊시스템은 트랜지스터部品の 調達이 어려워 製品이 中止狀態에 있었다.

또한 C에게 超大企業인 D會社가 吸收合併을 提議함으로써 이 사실이 成事되면 A와의 訟事は D가 繼續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A는 다시 C와 교섭을 再開하였고 그 조건으로는 C가 원하는 트랜지스터를 A가 提供하며 舊시스템에 관한 C의 特許와 새시스템에 관한 A의 특허사이에 無償의 相互實施契約을 締結하되 C의 株式中 10%該當分을 市價의 倍額으로 買受한다고 提示하였다.

이때 C는 以上の 조건을 受諾하되 X를 即時解雇하면 裁判을 取下하겠다고 提議함으로써 X는 A會社에서 解雇되었고 재판도 끝났으나 A는 이 시스템을 어느 自動車會社와 共同으로 製品化한다고 發表하여 同訴訟事態는 幕을 내렸다.